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

- 이기풍 선교사 이전 현지인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

박 정 환*

I. 머리말
II. 개신교 전래 시기의 제주도 상황
1. 신축년 제주교안
2. 현지인들의 개신교 접촉
3. 선교사들의 제주도 방문
III. 제주도 개신교 신앙공동체
1. 현지인에 의한 선교
2. 김재원과 이호리 신앙공동체
3. 조봉호와 금성리 신앙공동체
IV. 개신교 신앙공동체의 성격
1. 신앙공동체 구성원
2. 두 신앙공동체의 차이점과 공통점
3. 교역자 파송 요청
V. 맺음말

I. 머리말

본 연구는 제주도에서 개신교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정착되었는지 그 초기의 공간, 구체적으로 이기풍 목사의 선교활동 이전(1904-1908)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다. 1904년부터 1908년까지의 시기를 제주도 교회사의 초기로 설정한 까닭은 이 섬에서 개신교 현지인 신앙공동체가 1904년에 시작되었고, 1908년에 이기풍 목사가 이 섬에 파송되어 제주도 교회와 한국장로교회의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장로회신학대학교(Th.D., 역사신학)에서 공부하였으며, 나눔의교회 부목사.

이 글은 제주도 교회사와 관련된 기존의 문서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초기 개신교의 역사를 현지인의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현지인의 관점에서 제주도 교회를 연구하고 서술하고자 하는 시도는 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관점에 속하는데, 현지인의 눈으로 보는 교회사 이해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1992년 신대륙발견 콜럼버스 기념 500주년 대회 때 미국 노스다코타 주에선 “1492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의해 발견되어진 해이다”라고 역사의 주체와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여 10월 12일 ‘콜럼버스 데이’를 ‘Native American Day’로 바꾸어 기념하였다.¹⁾

지금까지의 제주도 교회는 대부분 제주도 바깥의 시각으로 기술한 선교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²⁾ “한국 선교역사,” “한국교회의 선교,” “한국장로교회의 선교사 파송” 등의 주제로 서술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기관의 입장에서 제주도 교회를 다루었다. 또한 제주도 교회사 관련 통사들 역시 선교사 이기풍 목사를 비롯하여 한국장로교회 전도목사들의 활동과 선교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본 연구는 제주도 현지교인의 상황과 역할에서 그 의의를 찾아보는 지역교회를 서술하고자 한다.³⁾

1) 김영동, “선교학에 나타난 선교신학의 유형,” 김동건 엮음, 『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10), 225.
 2) 박기호의 “한국 선교역사” ; 김영동의 “한국교회의 선교 : 선교 초기부터 626이전까지” ; 변창욱의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 등을 비롯하여 통사(通史)로서 발간된 『제주기독교사』 (1925) ; 강문호·문태선 편저, 『제주선교70년사』 (1978) ; 제주노회사 출판위원회, 『제주노회사』 (2000) ; 박용규의 『제주기독교회사』 (2008) ; 한인수의 『제주선교백년사(濟州宣敎百年史)』 (2009) ; 차중순의 『제주기독교100년사』 등의 제주도 교회사 서술 시각은 외부자적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라고 하겠다.
 3) 지역교회를 다룬 박사학위 논문으로 송현강, 『대전·충남 지역 교회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을 모두 아우르면서 선교혼재지역인 대전·충남 지역교회의 특성을 오늘의 한국기독교사 연구에서 “범위의 공간적 확대와 연구 내용의 다양화”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독교 전래의 배경과 수용 및 성격을 다루었다.

II. 개신교 전래 시기의 제주도 상황

개신교의 제주도 전래는 기독교 복음의 진공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1899년부터 천주교의 공식적인 선교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신축년(1901년)에는 제주교안이 발생하였고, 1904년에는 이호리에서 개신교 현지인 신앙공동체가 예배모임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이기풍 선교사가 도착하기 1년 전 1907년부터 금성리에서 현지인 신앙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1. 신축년 제주교안

제주도에서 개신교의 역사는 그 출발에 있어 천주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주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제주도와 기독교의 부정적인 관계로 마무리된 신축년 제주교안이라고 하겠다.⁴⁾ 제주교안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개신교회의 형성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는 천주교 전래의 과정을 살펴보자.

천주교는 외부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닌 제주도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서 이루어졌다.⁵⁾ 그러나 천주교의 공식적인 선교는 1899년 5월 페네(Jean Charles Peynet) 신부와 김원영(金元永) 신부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천주교의 초기 선교활동은 신자공동체의 급성장으로 이어졌다. 선교 개시 2년여 만에 거의 1천 명에 가까운 제주도 사람들이 천주교에 귀의했다.

하지만 매우 빠르게 교세를 확장하던 천주교는 현지인과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신축년인 1901년 5월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일명 ‘신축제주교안’은 주로 천주교인들의 교폐(敎弊, 천주교회가 현지인에게

4) 역사적으로 ‘교안(敎案)은 중국과 조선의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데, 공식 박해가 끝난 뒤 일어난 사건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여기에는 박해와 유사한 성격, 일반 민중과의 갈등, 외교문제 등의 의미가 복합되어 있다.

5) 김옥희,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 전개과정,” 『탐라문화』 제6집(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146.

끼친 폐단) 및 관리들의 세폐(稅弊, 세금징수의 폐단), 그리고 토착전통을 배격한 천주교에 대한 현지인의 항거로 알려져 있다. 즉 봉세관(捧稅官)의 조세수탈에 항의하고 선교사를 앞세운 선교활동에 반대한 현지인들의 봉기였던 것이다.

제주교안은 천주교 신자 300여 명이 살해되는 등 많은 사상자를 내는 내란(內亂)으로 치달았고 프랑스 외교관들의 항의와 선교사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프랑스 함대의 제주도 주둔으로 외교문제가 되자, 조선은 이재수·오대현·강우백 등을 처형(1901년 10월)하였고 지방관 교체,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유배자 이주, 현지인에 대한 민심수습, 천주교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 등으로 사태를 진정시켰다. 전체적으로 제주교안은 동족간의 살육으로 끝을 맺었다.

제주교안으로 인한 양금은 제주도에서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제주교안은 후일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의 선교 사업에 큰 지장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주교안은 “전도는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신앙은 현실적인 구체적 동기가 그 계기가 되었을 때 불순하고, 더구나 무슨 한을 풀기 위해 그 수단으로 입교하거나, 힘과 특권의 획득이 그 목표일 때에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야기된다는 것, 기독교는 군림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⁶⁾ 등을 밝히 보여주었다. 제주교안 이후 제주도의 토착문화전통은 더욱 폐쇄적으로 굳어져 갔으며 천주교 신자 수는 격감하였다.

전체적으로 개신교 신앙공동체가 형성되던 당시, 제주도는 천주교로 대변되는 서양종교에 대한 반감이 가득했다. 이러한 상황은 ‘켄당’으로 대표되는 토착문화전통의 특수성과 열악한 자연환경과 극심한 가난이 다중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근대화 및 외부 세력에 맞서야 했던 제주도 현지인의 고통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시작한 개신교 신앙공동체 지도자들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제주도 근대화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으며 현지인들의 종교적 갈망에 개신교가 응답할 수 있다고 보았다.

6)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200.

2. 현지인들의 개신교 접촉

제주도 현지인과 개신교의 접촉은 천주교의 공식적인 선교보다 훨씬 앞서서 이루어졌다. 역사적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첫째 아펜젤러(H. G. Appenzeller)의 학당에서 공부한 제주도 장지영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아펜젤러의 문서(H. G. APPENZELLER PAPERS) 중에 1886년 12월 11일(토, 서울) ‘아펜젤러 일기’(DIARIES)는 당시 기독교 전파 금지법이 널리 적용되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선교사 아펜젤러가 「신앙」이라는 소책자를 주면서 복음전도 사역을 제주도에서 온 장지영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소개한다.⁷⁾ 장지영은 제주도 출신으로서 어려움을 잘 참고 매우 총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1890년대 초 제물포에 세워진 영국성공회의 성누가병원(St. Luke's Hospital)에서 치료를 받고 복음을 전해들은 제주도 현지인들에게 성경과 전도책자가 전해졌는데, 복음의 빛이 이들에 의해 제주도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된다.⁸⁾

셋째 1890년부터 베어드(William M. Baird, 배위량) 선교사가 부산에서 자신의 거처에 ‘사랑방’을 마련하고 전도자들과 손님들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는데, 1893년 9월 11일자 베어드의 일지에는 “남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제주도에 온 장님”의 방문이 기록되어 있다.⁹⁾ 또한 베어드는 1894년 2월 28일 다음과 같이 썼다.

제주도에서 온 한 사람이 여기에서 여러 번 책을 구하고 약을 복용하였다. 그는 복음에 대해 약간 관심을 보였다. 사람들 몇몇이 최근에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그 섬에 들어가고 싶다.

7) H. G. Appenzeller, “DIARIES(1886-1901)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in *H. G. APPENZELLER PAPERS* (1886. 12. 11), 11.

8) E. B. Landies, “Report of St. Luke’s Hospital and Dispensary Chemulpo, For the year 1894,” *The Morning Calm*(1895), 52-53. 치료받은 129명 중 14명이 제주도 현지인이었다.[재인용, 류대영·옥성득·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II)』(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228]

9) Richard H. Baird, *William M. Baird of Korea A Profile*, 김인수 역, 『배위량 박사의 한국선교』(서울: 쿰란출판사, 2004), 56-57.

3. 선교사들의 제주도 방문

1896년 베어드의 순회전도는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는데, 이는 279일에 걸쳐 1,000마일이 넘는 긴 여행이었다. 이 때 베어드의 전도를 통해 복음이 제주도까지 전해졌다. 해리 로즈(Harry A. Rhodes, 노해리)는 “베어드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길 가에서 전도했고 항구에서 선원들에게 전도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제주도까지 전해졌다”¹⁰⁾고 했다.

선교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들은 성서공회에 소속된 전라도와 충청도를 담당했던 권서인 피터스(A. A. Pieters)와 대영성서공회 책임자 켄뮤어(Alexander Kenmure)였다. 1899년 피터스는 켄뮤어와 함께 제주도를 다녀온 후, 그의 선교여행을 글로 남겼다.¹¹⁾

천주교의 뮈텔 문서¹²⁾에 의하면, 페네 신부가 개신교 선교사들의 제주도 방문을 언급하였다. 개신교 선교사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천주교 신부들도 제주도 현지인들의 외부인에 대한 인식 때문에 선교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¹³⁾ 또한 천주교측 문서는 개신교 목사들의 활동을 “엽전만으로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¹⁴⁾으로 언급한다.

천주교측 자료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제주도를 방문하였고 구체적으로 전도활동을 펼친 흔적을 전해주고 있으며, 이 자료를 통해서

10)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 129.

11) A. A. Pieters, “Early Experiences of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August 1930), 176.

12) 제8대 조선교구장인 뮈텔(Mutel, 閔德孝) 주교가 선교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수집하여 놓은 문서군(文書群)을 총괄하여 부르는 호칭으로서, 문서들이 작성된 시기는 조선 선교사로 임명된 1877년부터 사망하는 1933년까지에 해당된다.

13) “페네 신부의 서한(문서번호 : 1899-10),”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43. 당시 제주도에 유배와 있던 김윤식의 일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綠陰晴史, 광무 3년 3월 16일; 4월 20일; 4월 21일; 4월 25일).

14) “페네 신부의 서한(문서번호: 1899-190),” 같은 책, 25.

당시 한국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갈등 및 이체선언의 배경을 읽어 낼 수 있다.

III. 제주도 개신교 신앙공동체

그러나 개신교 선교사들의 순회선교는 ‘제주도’라는 섬을 방문하고 그곳에 대해 알아보는 선교여행의 차원에 속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현지인들에게 선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현지인 신앙공동체를 통해서였다.

1. 현지인에 의한 선교

한국교회사에서 제주도 개신교 선교는 1908년 2월 이기풍 목사의 선교활동이 그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주도 선교를 “한국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첫 번째 타문화권 선교”¹⁵⁾라고 평가하였고, 한편으로 제주도 선교는 비록 유사문화권 선교이지만 “한국장로교회 독노회에 의해 추진된 실질적인 해외선교의 시작”¹⁶⁾이라고 보았다.

최근에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제주도 개신교 선교활동의 시작을 현지인에 의한 주체적인 선교로 보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금성교회가 “교회의 창립일을 1908년이 아닌 1907년으로 수정하겠다”¹⁷⁾는 청원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통합)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 청원의 핵심은 제주도에서 시작된 처음 교회는 금성교회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청원으로 인해 이기풍 목사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에 의해 개신교 선교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했다.

제주도 개신교 신앙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에 대한 소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택부는 『토박이 신앙산맥2』에서 제주도 신앙인들이 전하는 ‘구전’(oral tradition)에 근거하여 이기풍 목사가 입도(入島)하기 전, 서울에서 세례 받은 김재원과 제주도의 독립지사 조봉호라는 교인이 있었고, 이들에 의해 개신교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전해주었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사 연구자들 사이에 현지인 신앙공동체 존재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기풍 목사의 입도(入島) 전의 “자주적인 공동체” 시작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¹⁹⁾

그런데 제주도 현지인 김재원의 행적을 상세하게 전해주는 선교사의 회고록이 있었다. 에비슨(O. R. Avison)이 1940년 6월부터 1944년 10월까지 집필한 회고록 *Memories of Life in Korea*에 “제주도 김씨 이야기”(Story of Kim of Cheiju, p. 234)가 소개되었다. 에비슨은 “제주도 김씨 이야기”를 통해 김재원의 치료과정과 회심 및 현지인 신앙공동체의 존재를 서술하였다. 에비슨의 회고록은 황해도 소래교회(Sorai Village, p. 292)와 연동교회 초기에 읽힌 이승두(李承斗)의 투옥(Rhee's Story of his imprisonment, p. 272) 사건보다 먼저 김재원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서술하였다.²⁰⁾

이처럼 이기풍 목사의 선교활동 이전에 제주도에는 현지인 신앙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신앙공동체는 두 가지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첫째는 현지인들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이끌다가 선교사와 합류하여 제주도의 처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초기 한국교회가 형성된 맥락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천주교의 선교활동이 펼쳐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개신교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전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는 신앙공동체의 리더들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별성을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5)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1999), 43.

16) 변창욱, “한국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 「선교와 신학」 제19집(2007년 6월), 16.

17) 「제주기독신문」 2007년 4월 28일, 1면.

18)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2』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239-246.

19) 한인수, 『제주선교백년사』 (서울: 도서출판 경건, 2009), 27.

20) O. R. Avison, *Memories of Life in Korea*, 박형우 편역, 『근대 한국 42년 1893~1935(下)』 (서울: 청년의사, 2010), 5, 301-340.

2. 김재원과 이호리 신앙공동체

1) 김재원의 신앙여정

김재원(金在元)은 오래전 서울에서 세례를 받고 귀향한 제주도 출신의 개신교 신자였다. 그가 어떻게 기독교와 만나게 되었을까? 구전에 의하면 “치유할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던 김재원은 1900년 어느 날, 아버지 김진철과 함께 제증원의 원장 에비슨을 찾았다.…… 에비슨은 ‘예수를 믿겠다’는 김재원의 약조를 받고 수술을 시도했다. 김재원은 몇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완쾌되었다. 그는 선교사와의 약속대로 세례를 받았다.”²¹⁾

그런데 에비슨의 회고록 *Memories of Life in Korea*에는 김재원에 관한 이야기가 구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1903년 경 서울 안의 옛 장소[제증원]에서 아직 병원을 운영 중이었을 때, 한 젊은이가 오른쪽 가슴에 있는 농흉(膿胸)을 치료해 달라며 찾아 왔다. 그것은 더러운 냄새가 나며 이미 여러 늑골이 침식된 오래된 만성이었다. 당연히 장기간 치료를 해야 했다. 우측의 모든 늑골을 제거해 흉곽이 함몰되고 가슴 안쪽에 유착돼서야 회복되었는데 약 2년이 걸렸다. 치료를 받는 동안 그는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제주로 돌아간 그는 친구들에게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말했다.²²⁾

에비슨의 회고록은 김재원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던 구전과 일치한다. 다만 수술을 받았던 시기가 집안의 구전에는 1900년으로 되어 있으나, 에비슨은 1903년경으로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김재원의 병원 입원과 퇴원에 관해 몇 가지 고려할 점이

21) 전택부의 김재원 소개는 집안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증언에 의한 기록이다. 참조, 이찬영, 『격동기의 파수꾼: 해산 임기봉목사전기』(서울: 감람원, 2005), 156-159. 김영식, 『제주기독교신문』(2007년 1월 20일). 임광원 서신, “제주성내교회 김재원 초대장로님에 대한 교회사적 입장에서 수정고찰을 건의합니다.”(1999년 4월 15일)

22) O. R. Avison, 같은 책, 309.

있다. 우선 김재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은 1904년이 확실하고 또한 1904년부터 제증원이 남대문 밖 복숭아골(현재 서울역 맞은 편 세브란스빌딩 자리)에 병원을 세우고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김재원은 옛 장소에서 병원을 운영 중일 때, 제증원을 찾았고 치료가 2년 동안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김재원의 수술과 관련하여 에비슨이 회고한 연대가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²³⁾

2) 제증원과 한국선교

김재원이 치료를 받았던 제증원은 1885년 갑신정변이 계기가 되어 세워진 병원으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의료 및 전도사업의 목적이 펼쳐졌던 선교기관이었다.²⁴⁾ 김재원은 이곳에서 치료받으면서 기독교 신앙과 개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에비슨의 회고록에 의하면, 김재원은 수술 받은 지 약 30년 후에 에비슨의 집을 방문했다.²⁵⁾ 그때 김재원은 에비슨에게 제증원에서 활동하던 학생 조수들에 대해 많은 것을 물었다. 김재원이 입원했을 당시의 학생 조수들은 제증원의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었으며, 그 학생들 중에는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 있었다. 백정 출신 박성춘과 아들 박서양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김재원은 제증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학생 조수들을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활동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23) 필자는 당시 제증원 환자의 명단을 찾기 위해 1898년에서 1904년까지 제증원 의사로 근무하면서 여성들을 진료했던 에바 필드(Eva H. Field Pieters, 1868-1932)의 일기와 미 북장로회 선교부 보고서 가운데 개인 편지를 찾아보고 있으며, 최근에 에비슨 선교사 연구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형우 박사에게 문의하기도 하였으나, 제증원 환자 명단과 연도에 접근하지는 못했다.

24) 서정민, “제증원 선교공동체의 성격,” 『신학논단』 제30집(2002), 261.

25) 김재원 장로는 1930년 9월 평양에서 열리는 한국장로교 제19회 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서울에 들러 에비슨 선교사를 만난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약 28년 전에 제증원에서 한 젊은이의 죽을 질병을 치료한 의사와 죽음의 한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환자의 재회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당시 김재원은 차별과 신분을 변화시킨 개신교 선교에 깊은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김재원은 제주도에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훗날 김재원은 이기풍 목사와 함께 제주도에 선교병원이 세워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했었다.²⁶⁾ 이것은 자신의 질병 치료에서부터 시작된 개인적인 관심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에비슨의 글이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선교 병원이 어떻게 환자의 육신을 돌보면서 영적인 영향을 주어 처음에는 단지 육신의 병 때문에 내원한 사람들의 삶과 소망을 변화시켰나 하는 많은 예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치료를 받는 중에 종교적 가르침을 받았다.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싹트던 자신의 신앙을 진심으로 전파하게 된다.²⁷⁾

3) 서상륜과 김재원의 만남

김재원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에 매서인으로 등장한다. 그가 언제부터 매서인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기풍 목사는 매서인 김재원과 함께 조보호를 전도했다고 소개한다.²⁸⁾ 『대한성서공회사』에 의하면 김재원은 1910년부터 1911년 사이에 성서공회의 공식적인 매서인이었다.²⁹⁾ 김재원은 어떻게 매서인의 역할 및 자격을 부여받았는가?

집안의 구전에 의하면, 김재원은 처음부터 매서인의 역할을 감당했었다. 경성의 제중원에서 고향 제주도로 올 때, 그는 쪽복음서와 축음기를 들고 왔다. 그는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보고 경험한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다.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재원의 아버지 김진철은 아들이 제주도의 토착문화전통을 배신하고 기독교

26) R. M. Wilson, "Medical Report of Kwangju Station," *The Korea Mission Field* (October 1912), 292-293.

27) O. R. Avison, 같은 책, 311.

28)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상)』, 265-266.

29) 류대영·육성득·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II)』, 228, 241, 499, 597.

로 개종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고 할 정도였다.³⁰⁾

매서인으로서의 김재원은 제중원 입원기간 서상륜과의 만남에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에비슨 선교사는 1901년 6월 선교부의 동의하에 서상륜을 제중원 전도자로 고용하였고, 서상륜은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서상륜은 병원 직원들을 아침 일찍 모아 기도회를 가졌고, 아침 식사 후 환자 및 조수들과 주 병동에서 함께 기도회를 가졌으며, 그 후 기회가 되는 대로 하루 종일 환자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가졌다. 그는 또한 외래 환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세 개의 작은 팸플릿을 만들었다. 그리고 때때로 몇몇 환자들의 고향인 농촌에 찾아가 그들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했던 일을 완수하려고 노력하였다.³¹⁾ 서상륜은 매주 수요일 저녁 큰 외래진찰실에서 남녀 모두가 참가하는 병원 기도회를 주재하였다.

따라서 제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김재원은 서상륜을 만나 신앙의 삶과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 배웠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상륜은 1887년 9월부터 언더우드의 조사로서 서울과 북한 지역의 전도자였다.³²⁾ 1903년 선교사 샤프(Chales E. Sharp)는 서울의 서상륜의 효과적인 목회와 전도활동에 대해서 “서 집사는 내가 본 자 중에서 가장 좋은 목회자”라고 보고했다.³³⁾

김재원이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기간은 서상륜이 서울에서 가

30) “제주성안교회 김희석 장로 면담,” 2011년 7월 6일(수) 오전 제주도 김희석 장로의 집. “김의영 목사 면담,” 2013년 7월 30일(화) 오후 서울 중구 신당2동 나눔의교회 2층.

31) *Annual Report of The Imperial Korean Hospital, Seoul, Korea* (Methodist Publishing House, Sept. 1901), 17.

32) H. G. Underwood to F. F. Ellinwood. Sept. 30, 1887, *Letters and Reports of the Korea Mission*, PCUSA, Philadelphia,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 H. G. Underwood to F. F. Ellinwood. Feb. 6, 1888, *Letters and Reports of the Korea Mission*, PCUSA, Philadelphia,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육성득, “초기 한국교회의 일부다처제 논쟁,”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6호(2002년 2월), 25.

33) C. E. Sharp, to F. F. Ellinwood. May 12, 1903, *Letters and Reports of the Korea Mission*, PCUSA, Philadelphia,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육성득, 같은 책, 29.

장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을 때였다. 세례를 받고 제주도로 돌아왔을 때, 쪽복음서와 전도를 위한 팜플렛 등을 나누어주며 전도했던 상황은 서상륜과의 만남을 전제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다. 제중원 전도인 서상륜이 제주도 출신 외래 환자인 김재원에게 신앙 및 전도인의 자세를 훈련했던 것이다. 이로써 제주도 최초 개신교 현지인 신앙공동체 형성에는 서상륜과 제중원의 에비슨의 영향이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조봉호와 금성리 신앙공동체

1) 조봉호 관련 구전의 성격

금성리 신앙공동체 지도자는 조봉호로 알려져 있다. 조봉호(趙鳳鎬)는 제주도 교회를 언급할 때면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동안 이기풍 목사와 조봉호는 제주도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선 말씀과 성례전이 집행되는 교회를 설립하였다면, 조봉호는 이기풍 목사의 초창기 선교활동을 돕는 한편 독실한 신앙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교하였기 때문이다.³⁴⁾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봉호와 그의 구체적인 선교활동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따라서 조봉호와 신앙공동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봉호 생애에 관한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³⁵⁾ 그래서 조봉호에 관한 ‘구전’(oral tradition)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런 다음 조봉호에 관해 기록된 2차 정보들을 재배열하고 보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사 기록들 중에는 제주도 기독교인 조봉호와 관

련하여, 거의 사실처럼 굳어진 내용도 있다. “조봉호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서울의 경신학교와 평양의 숭실학교를 졸업했다,” “조봉호는 이기풍 목사의 조자였다,” “조봉호는 금성리교회를 설립했다,” “조봉호는 전도사로서 성내교회를 섬겼다” 등 확인되지 않은 상당한 부분들이 역사적 사실로 확대된 것들도 있다.³⁶⁾

그러나 조봉호가 이기풍 목사의 조자 혹은 성내교회의 전도사라는 표현은 너무 성급하다고 보인다. 한국교회사에서 선교사와 조사의 관계는 매우 특별했다. 조사는 단순한 통역이나 심부름꾼이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현지 문화와 정신을 가르쳐 준 선생이며 동시에 선교사들이 전하고자 하는 기독교 복음을 한국말과 문자로 해석해 주는 메신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봉호가 세례를 받은 시기는 1915년이다.

이처럼 조봉호 관련 구전 가운데는 교회활동 및 직분에서 불분명한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순국한 조봉호를 제주도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만 아니라 기독교적 영향으로 확대하려는 심리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봉호의 자료를 다루는 데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조봉호에 관한 구전을 기록한 여러 문서들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금성리 신앙공동체와 조봉호의 역할이 적극적이었던 사실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를 적극 수용한 『전남노회75년사』 역시 김재원과 조봉호 공동체의 시작과 존재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따라서 조봉호의 경신학교와 평양 숭실학교 졸업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이들 학교에서 수학(修學)한 사실은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³⁷⁾ 또한 금성리 신앙공동체를 시작한 지도자였다는 구전의 내용은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34) 김봉욱, “인물로 본 한국 기독교사 28 : 기독교인 趙鳳鎬의 殉國行狀,” 『한국기독교사연구』 제30호(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90년 7월).

35) 김재원의 생애사 서술이 구전과 문서의 상호보충을 기초로 하면서 사실과 사실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서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이 기술되었다고 한다면, 조봉호 생애사 서술은 거의 구전에 의지해야 한다.

36)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제주선교70년사』(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부, 1978), 44-45. 모슬포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모슬포교회100년사』(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 2009), 94. 연규홍, 『제주성내교회100년사』(제주: 유토피아, 2008), 159.

37) 조봉호 아들들의 이름이 로득(路得), 피득(彼得, 피터스)인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조봉호의 생애와 기독교 입문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금성리 신앙공동체의 지도자 조봉호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금성리 신앙공동체를 이끌었던 조봉호가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사실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조봉호의 성장 환경은 제주도 근세사에 나타난 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다. 향토사학자 김봉옥은 조봉호가 13세 되던 해에 유림들이 단발령을 반대한 사건으로 송계홍(宋啓弘)의 소요가 있었다고 했다.³⁸⁾ 조봉호는 15세 되던 해에는 탐관오리를 규탄한 ‘방성칠의 난(房星七亂)’을 겪었다. 조봉호는 관원들의 부정부패를 보면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기도 했다. 또한 조봉호가 18세 되던 때 신축 제주교안(이제수의 난)이 발생했다. 이러한 일련의 민란들을 목격하였던 제주도 내의 뜻있는 젊은이들은 새로운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서울로 유학의 길을 떠났는데,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어렵풋하지만 제주도의 근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⁹⁾

둘째, 조봉호의 기독교 입문은 구한말 격변기를 살아가는 지식인들과 이 땅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던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조봉호가 수학했을 것으로 보이는 1901-2년경, 언더우드 학당은 종로 연지동에 새로이 학교를 마련하고 교명을 ‘예수교중학교(야소교중학교)’로 변경하였다.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이 교장으로 취임하여 중등과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1903년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게일이 “고상한 기독교의 이상(理想) 위에 학교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⁰⁾

조봉호는 이곳에서 중등과 학생으로 신학문과 신앙에 접했을 것이다. 그의 경신학교에서의 생활이 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 초창기(1901-1905) 중학교의 교과목 및 담당교사는 다음과 같다.

성 경 : 김정삼 · 게일	대 수 : 밀의두
교회사 : 게일	화 학 : 에비슨
국 어 : 김정삼	물 리 : 언더우드
한 문 : 정빈 · 김도희 · 김정식 · 유성준 · 이창직	천 문 : 게일
영 어 : 디 켈	박 물 : 기보
산 술 : 정혜영	조선사 : 이창직 ⁴¹⁾

조봉호가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교장인 게일 선교사로부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교육에 대한 비전을 보았고, 게일과 교제했던 지식인들로부터 독립에 대한 의지와 민족애를 품게 되었을 것이다. 신앙적 차원에서 볼 때, 조봉호는 기독교와 만나 개인적 회심보다는 사회적 회심의 한 형태에 속하는 문화적 회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²⁾ 따라서 조봉호의 경우엔, 기독교와 만나 개종을 동반한 회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기독교에 입문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근대화의 제주도

비록 그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조봉호는 경신학교 수학을 통해 개신교의 근대화에 천착했으며, 그의 근대화에 대한 열망은 민족독립으로 모아졌다. 신앙 인격을 갖춘 신(新)지식인 조봉호가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개신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고향 제주도의 근

41) 재인용, 고춘섭, 『경신사』(서울: 금영문화사, 1991), 208.

42) 한국인은 문화적 회심이 회심자 내부의 자발적 전환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통합적인 변화를 수반한 전환이 아니라 선교사와 그의 문화를 향한 전환에 속한다고 했다. 외형적으로는 불신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선교사의 삶의 형태와 방식 등에 더 관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화에 대한 욕구나 서구의 현대문화를 배우려는 선교지 지성인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회심이다. 한국인, “선교와 회심,” 『장신논단』(2001년 12월), 412.

38) 김봉옥, “조봉호 전,” 『제주문화』(제주: 제주문화, 1990), 129.

39) 김봉옥, “인물로 본 한국 기독교사 28 : 기독교인 趙鳳鎬의 殉國行狀.”

40) 고춘섭, 『경신사』(서울: 금영문화사, 1991), 205-209.

대화였다고 보인다. 이것은 기독교인이자 독립지사로 살았던 그의 삶이 보여주었던 내용과 일치한다. 그래서 조봉호에게는 양면성이 있었다.

한쪽으로는 기독교 신앙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민족적 애국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조봉호는 제주도의 지식인이며 동시에 기독교인으로서 제주도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⁴³⁾

천주교의 제주도 선교와 신축년 제주교안을 직접 겪었던 그로서는 개신교와 근대화, 예수교와 민족의 연결에서 새로운 빛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제주성내교회의 남녀소학교 최초의 교사로 봉사했던 사실이 말해주고 있으며, 1907년 7월 6일에 창립된 ‘호남학회’의 1909년, 1910년 제주지역 회원이었다는 사실과 연결되고 있다.⁴⁴⁾ 당시 학회는 서울에서 자강운동, 계몽운동에 종사하고 있던 인사들이 출신 지역별로 신학문의 수용, 신교육의 실시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⁴⁵⁾

IV. 개신교 신앙공동체의 성격

1. 신앙공동체 구성원

1) 이호리 신앙공동체 구성원들

가. 토착전통과의 갈등

김재원은 병을 치료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어 고향 제주도로 돌아와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김재원의 전도를 받고 이호리

43) 제주기독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 기독교 100년사』(서울: 쿤란출판사, 2009), 129.

44) 고창석·강만생·박찬식, 『제주사 연표 I』(제주: 제주사정립추진협의회, 2005), 356.

45) 박찬승, “한말호남학회연구,” 「국사관논총」 제53집(국사편찬위원회, 1994년 6월), 131.

신앙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옛 풍습대로 3년 상을 입어야 했다. 그러나 김재원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문중은 김재원을 불효자로 단죄하여 명석말이 매로 다스리게 하였다. 사태가 험악하게 되자 김재원의 모친이 “무당 귀신은 내 아들을 못 살렸지만, 예수님은 내 아들을 살려주었지 않았느냐? 나는 아들 살려주신 예수만 믿지 다른 귀신 안 믿는다”⁴⁶⁾고 하여 김재원에 대한 단죄 행위는 더 지속되지 않았다. 집안의 구전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김재원은 전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옷을 들어 올려 수술자국을 보여주었고, 죽다가 살아난 자신의 일을 간증하면서 전도했다. 김재원의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전해 받은 복음으로 밭에서나 들에서 열심히 전도하였고 여성들을 교회(신앙공동체)로 인도했다.

구전은 김재원의 신앙공동체는 어머니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열심히 전도하여 여성들과 일부 현지인이 합류하였다고 전해준다. 또한 이호리 신앙공동체에는 김재원의 친구들도 합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예비슨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로 돌아간 김재원은 친구들에게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 자신이 신과 그리스도에 관해 배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한 무리의 신도들이 생겼다. 내가 알기로 그때까지 제주도에서는 개신교의 전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⁴⁷⁾

나. 이호리 신앙공동체 구성원들

결국 이호리 신앙공동체는 김재원의 입교와 회심을 통한 전도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 공동체는 어머니에 의해서 여성들이, 김재원에 의해서 친구들이 합류하였다.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의 제주성내교회 성립을 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6) 임광원 서신, 같은 자료.

47) O. R. Avison, 같은 책, 309.

제주도 성내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에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이기풍이 당지에 래(來)하여 산지포에서 전도할새 경성에 기유할 시에 수세한 김재원을 봉착하여 협력 전도한 결과 홍순홍, 김행권 등이 귀주함으로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일터리 증인문 내에 초옥을 매수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전도인 김흥련, 이선광 등이 전도에 전무하니라.⁴⁸⁾

이호리 신앙공동체는 제주도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성내교회로 발전하였는데, 위의 인용문은 내용상·시간상으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첫째는 한국장로교회 처음 선교사 이기풍 목사와 김재원의 만남이다. 둘째는 제주도 선교활동이 두 사람의 협력 전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홍순홍, 김행권 등의 귀주(歸主)이다.⁴⁹⁾ 여기서 홍순홍, 김행권 등이 귀주(歸主)했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김재원의 전도를 받았던 이호리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임을 암시한다. 이호리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최소한 어머니 김인에, 동생 김재순, 김재선 그리고 홍순홍, 김행권 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⁰⁾

2) 금성리 신앙공동체 구성원들

금성리 신앙공동체는 제주도 개신교 초기 교회인 금성리교회로 발전하였는데, 조봉호와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의 금성교회 성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 금성리교회가 성립하다 독노회 설립 당시에 파송한 전도목사 이기풍과 매서인 김재원 등의 전도를 인하여 조봉호, 이도중, 김씨 진실, 조운길, 양석봉, 이씨 승효, 이씨 자효, 김씨 도전, 김씨 유승, 좌정수, 이의중

48)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상)』, 274.

49) 이기풍 목사가 김재원 공동체는 ‘귀주’(貴主)로, 조봉호 공동체는 ‘귀도’(貴道)로 기록한 것의 차이점과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요청된다.

50) 김의영 목사는 필자와의 면담에서 집안의 구전에 기대어, 김행권은 김재원이 축음기와 쪽복음으로 전도할 때,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증언했다. 2013년 7월 30일.

이 귀도하여 조봉호 가에 회집 기도하다가 이덕연 가를 예배처소로 작정하니라.⁵¹⁾

금성리 신앙공동체 구성원과 관련하여, 위의 인용문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첫째는 이기풍 목사와 매서인 김재원이 조봉호 등 10인에게 전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서인 김재원의 인도로 이기풍 목사가 금성리 신앙공동체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둘째는 김재원이 매서인으로 언급된 사실이다. 위의 인용문이 1908년 금성리교회 설립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할 때, 김재원이 공식적으로 매서인의 자격을 언제부터 부여받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전도활동의 처음부터 매서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의미한다. 셋째는 김재원과 이기풍 목사의 전도를 받은 열 사람은 조봉호 가족과 이도중의 가족, 그리고 개인들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조봉호를 비롯한 10인의 ‘귀도’(歸道)는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의 모임을 암시한다. 몇몇 개인들이 한꺼번에 전도를 받고 귀도했다기보다 먼저 있었던 신앙공동체 모임이 이기풍 목사와 합류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금성리 신앙공동체 구성원들 역시 이기풍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더 깊은 기독교의 진리로 인도되었고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다.

2. 두 신앙공동체의 차이점과 공통점

1) 두 신앙공동체의 차이점

전체적으로 제주도 신앙공동체 형성에는 지도자들의 개화기 한국에 대한 인식, 천주교와 차별성을 가진 개신교 이해, 제주도의 변화에 대한 갈망 등이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개인적 입교에서는 다소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김재원은 질병치료를 위해 제주원에서 생활할 때 세례를 받았다. 치료 후에 그는 제주도로 돌아와 전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기

51)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상)』 (1928), 265-266.

독교 신자가 되었는지 수술 받았던 곳을 보여주기도 하고 직접 기독교 진리를 전파했다. 그래서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의 개인적 회심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에 금성리 신앙공동체 조봉호의 경우는, 개인적 회심에 대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조봉호가 1915년에 세례를 받았고, 이 신앙공동체의 주축이 된 가정의 중심인물인 이도종을 역시 1915년 4월 25일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1908년 성내교회에서 남녀소학교가 시작될 때, 금성리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따라서 조봉호와 신앙공동체는 새로운 시대에 제주도의 나아갈 길을 교육에서 찾았고 근대화와 개신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 두 신앙공동체의 공통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신앙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첫째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토착문화전통과 우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괜당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문중에서 축출되기까지 하였다. 김재원이 그랬던 것처럼, 김재원의 전도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이호리 공동체의 홍순홍 역시 집안의 반대와 직면해야 했다. 금성리 공동체의 이덕련은 일가친척들로부터 “예수 귀신이 들린 천하에 못된 놈”이 되어 버렸다.⁵²⁾ 명석말이 당한 것은 다 반사였고, 욕을 먹고 배척을 받았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토착문화전통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둘째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새로운 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는 점이다. 신앙공동체는 개신교에서 이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고 있었다.

셋째 1901년 제주교안으로 인한 제주도 선교의 어려움이었다. 현지인들이 신앙공동체에 합류하기 가장 어려운 난제가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은 종교라고 보는 것이었다. “천주교도 예수교, 개신교도 예

52) 이도종목사기념사업회, 『제주 제1호 목사 이도종의 생애와 순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2001), 38.

수교 아니냐?”⁵³⁾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청되었다.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그 대답을 개신교의 ‘이체선언’에서 찾았는데, 그들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겠다.⁵⁴⁾

넷째 주체적인 개신교 수용에 대한 의지이다. 제주도를 위해, 김재원은 개인적 회심의 복음을, 조봉호는 문화적 회심의 차원에서 개신교와 근대화를 적극 수용하고자 했다. 두 신앙공동체 구성원들 역시 만민이 평등하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3. 교역자 파송 요청

이호리 신앙공동체는 김재원과 그의 어머니의 전도를 받은 현지인이 함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김재원은 세례식, 성찬식 같은 예식에 교역자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선교사에게 교역자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구전의 내용이다.

[이호리] 신앙공동체는 그 처음이 어머니와 함께였으며, 김재원의 거처에서 기도처 모임이 계속되던 중 교역자가 필요하게 되어 평양의 마ffet (Samuel A. Moffett) 선교사에게 교역자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⁵⁵⁾

이처럼 구전은 김재원과 이호리 신앙공동체가 한국장로교회에 편지를 했다고 전한다. 제주도에 목회자를 파송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줄 것과 동시에 전도도 해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에비슨의 회고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

53) 홍성봉, 『제주 선교의 첫 열매, 첫 장로 홍순홍의 신앙과 삶』 (제주: 도서출판 늘, 2008), 40.

54) 서정민, 『한국교회의 역사』 (서울: 북토피아, 2007) 참조.

55) 때마침 조선예수교장로회가 독(립)노회를 창립하여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릴 때, 에비슨 선교사가 이 편지의 내용을 안건으로 붙였다고 전한다. 이사례의 기록과 집안의 구전에 의지할 때, 이 사실은 매우 개인성이 높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독노회의 안건에 붙였다는 내용은 독노회록에는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사례,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 (서울: 기독교문사, 1991), 56 참조, 임광원 서신, 같은 자료.

때때로 그[김재원]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동안 장로회의 총회[독노회]는 [이기풍] 목사와 [이선광] 전도부인을 제주도로 보내 김씨의 종교 활동을 추적하도록 했다. 교회가 세워졌고, 머지않아 여러 교회가 세워졌다.⁵⁶⁾

이로 보건대, 한국장로교회는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파송하기 전에 이미 현지인 신앙공동체에 대한 상황을 꽤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V. 맺음말

개신교의 제주도 전래는 기독교 복음의 진공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1908년 선교사 이기풍 목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제주도에는 이미 천주교의 공식적인 선교가 1899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1904년에는 개신교의 이호리 신앙공동체가, 그리고 1907년에는 금성리 신앙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신앙공동체는 개신교 선교의 토대가 되었는데, 이기풍 목사의 입도(入島)를 계기로 개신교 선교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초기 제주도 교회사에서 주목할 점은 1901년 발생한 제주교안이 현지인에게 기독교 복음을 기피하는 뚜렷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제주교안은 천주교와 현지인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이후 오랫동안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선교 사업에도 큰 지장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에 접한 두 젊은이가 있었다. 이호리 출신 23세의 김재원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서울의 제중원을 찾았고 2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제중원에서 에비슨 선교사, 의학생들의 활동, 그리고 서상륜 등과의 만남을 통해 개신교를 인식했다. 그가 이해한 개신교는 차별과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이에

게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이었다. 그는 제주도로 돌아와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금성리 출신 19세의 조봉호는 제주도의 민란을 직접 경험한 청년이었다. 그는 경신학교(당시 예수교중학교)에서 수학하면서 교장인 게일 선교사와 여러 지식인들을 만났다. 조봉호 역시 개신교를 분명히 인식하였는데, 그는 개신교 선교활동에서 근대화와 교육을 연결시켰으며, 기독교 신앙과 애국에 깊이 관심하였다. 그는 제주도로 돌아와 1907년 금성리 신앙공동체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한국장로교회의 공식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 제주도에 는 개신교 신앙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특별히 이호리 신앙공동체의 요청에 의해 1907년 독노회에서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 해외선교사로 택함을 받았으며, 1908년 2월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이기풍 목사는 김재원의 안내로 1908년 5월 금성리 공동체를 방문하였다.⁵⁷⁾ 이후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개신교 신앙공동체에서 나타난 두 가지의 특성을 통합하는 지렛대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교활동의 방향을 적절히 설정했다고 하겠다.

그동안 제주도 교회사는 거의 이기풍 목사의 선교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의 초기 제주도 선교활동은 이호리와 금성리 신앙공동체의 필요와 요청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주도의 상황에 적합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기풍 목사의 “능력전도” 및 영혼구원의 복음전도, 교육 및 의료를 통한 선교, 여성을 위한 선교활동 등은 현지인과의 협력 및 동역의 결과이자 두 신앙공동체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선교지에서 현지인의 필요에 다가가고자 애쓰면서 낮아짐의 영성을 견지했던 이기풍 목사의 선교 의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 부분은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57) 『전남노회75년사』에 의하면, 제주도 금성교회의 설립자가 이기풍과 김재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매서인 김재원의 역할을 기록한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의 적극적인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남노회75년사』는 김재원과 조봉호라는 두 인물과 이들에 의해 시작된 개신교 신앙공동체를 확인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전남노회75년사발간위원회, 『전남노회75년사』(전남노회: 글벗출판사, 1993), 824.

56) O. R. Avison, 같은 책, 310.

참고문헌

- Annual Report of The Imperial Korean Hospital, Seoul, Korea* (Methodist Publishing House, Sept. 1901).
- Appenzeller, H. G. "Diaries(1886-1901)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H. G. APPENZELLER PAPERS*.
- Avison, O. R., *Memories of Life in Korea* (1893-1935).
- Baird, Richard H., *William M. Baird of Korea A Profile*, 김인수 역, 『배위량 박사의 한국선교』 (서울: 쿰란출판사, 2004).
- Rhodes, Harry A.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 (Seoul: Chose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934).
- 고창석·강만생·박찬식, 『제주사 연표 I』 (제주: 제주사정립추진협의회, 2005).
- 김봉옥, "조봉호 전," 『제주문화』 (제주: 제주문화, 1990).
- 김옥희,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 전개과정," 『탐라문화』 제6집(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 류대영·옥성득·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 박찬승, "한말호남학회연구," 『국사관논총』 제53집(국사편찬위원회, 1994년 6월).
- 옥성득, "초기 한국교회의 일부다처제 논쟁,"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6호 (2002년 2월).
- 이도종목사기념사업회, 『제주 제1호 목사 이도종의 생애와 순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2001).
- 임광원 서신, "제주성내교회 김재원 초대장로님에 대한 교회사적 입장에서 수정고찰을 건의합니다,"(1999년 4월 15일).
-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2』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上)』 (京城: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1928).
-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제주복음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4집)(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한글초록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제주도 기독교의 역사가 1908년 이기풍 목사의 선교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기풍 목사가 도착하기 전인 1899년 이미 천주교의 공식적인 선교가 이루어진 곳이었다. 더구나 그 시기에 제주도에는 개신교 현지인 신앙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한국장로교회는 신앙공동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이 공동체는 1904년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한국장로교회는 이기풍 목사를 그 섬에 보냈으며, 그는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선교활동을 펼쳤다.

기록에 의하면, 한국장로교회의 선교 이전, 제주도에는 두 신앙공동체가 있었다. "이호리 신앙공동체"는 김재원의 전도에 의해 1904년에 시작되었다. 이 공동체는 선교사를 제주도로 보내달라고 한국장로교회에 요청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선교사업의 베이스캠프가 되었으며 제주도에서 여러 교회들이 설립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조봉호에 의해 1907년에 설립된 두 번째 "금성리 신앙공동체"는 제주도를 위한 근대화 및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공동체는 기독교의 신앙을 애국하는 마음으로 연결시켰다.

이들 공동체를 통해 제주도 기독교 역사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현지인들이 예배모임을 가졌고 그들이 선교사를 요청했으며, 그로 인해 제주도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초기에 교회들이 형성되는 맥락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둘째는 개신교 신앙공동체들이 천주교의 선교활동이 진행 중일 때 시작되었는데, 사실상,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지도자들은 제주도의 근대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으며, 개신교를 통해 현지인들이 품고 있었던 종교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김재원에 대한 구전과 신앙공동체에 대한 존재가 끊임없이 학계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사 관련 학계에서는 이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의 회고록 *Memories of Life in Korea*에 김재원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회고록의 내용은 김재원에 관한 구전과 거의 일치했다. 에비슨의 회고록이 제주도 신앙공동체의 시작과 성장을 재구성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 셈이다.

이 두 신앙공동체는 1908년에 합류되었다. 그 결과, 초기 제주도 교회의 모습이 형성되었다. 즉 이기풍 목사의 선교활동과 함께, 초기 제주도 개신교의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류되었던 것이다. 이 공동체들의 특성은 한편으로 '질병의 치유를 통한 선교'와 다른 한편으로 '근대화를 향한 선교'였다. 여기에는 현지인들과 이기풍 목사의 좋은 협력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장로교회의 초기 제주도 선교는 두 공동체들의 합류를 통해서 현지인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고 하겠다.

주제어 : 제주도 개신교, 현지인 신앙공동체, 제주교안, 김재원, 이호리 신앙공동체, 조봉호, 금성리 신앙공동체, 구전, 에비슨의 회고록.

Abstract

A History of the Formation of Early Jeju-do Protestant Church

: Native Faith Communities before the Mission of Rev. Lee Gee-Pung

Park Jeong-Whan

Generally, Protestants say that Christian history of Jeju-do began by the mission of Rev. Lee Gee Pung in 1908. However, it had already become a mission field by the Catholic Church in 1899 before Rev. Lee arrived. Furthermore, the faith community of Protestant Church had been in activity in Jeju-do at that time.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PCK)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his community, which had started in 1904. Then PCK sent Rev. Lee to the island, where he worked with the native islanders.

According to records, before mission of PCK, there were two faith communities in Jeju-do. "Ihori Community" started in 1904 was founded by an evangelizing of Kim Jae Won. This community requested that PCK would send a missionary to Jeju-do. Ihori Community became the base camp of missionary work, and paved a way to establish other churches in Jeju-do. "Kumsungri Community," the second faith community established in 1907 by Cho Bong Ho, showed deep interests in the modernization and education for Jeju-do. Kumsungri Community put the christian faith alongside the patriotic spirit.

Two themes in the church history of Jeju-do can be confirmed through these communities. First, the natives conducted the service meeting and they pulled together with missionary, and then churches of Jeju-do were sprung up. This showed the same patterns as the forming context of early Korean churches. Second, these communities of Protestant Church were started during mission work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Leaders of communities, in fact, were awar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Protestant Church. Also, they had the unquenchable thirst for the modernization of Jeju-do and thought that Protestant Church could answer some religious questions the

natives had in mind.

So far the oral tradition on Kim Jae Won and the existence of the faith community was presented industriously over the academic circles, but this was rarely recognized in the academic world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Yet, *Memories of Life in Korea* by Oliver R. Avison keeps the record on Kim Jae Won straight. The contents of the Memories correspond closely with the oral tradition on Kim. The Memories is an excellent source for restructuring the shape and growth of Jeju-do communities.

These two communities were joined in 1908. As a result, the distinct feature of Jeju-do churches was formed. That is, since the mission of Rev. Lee Gee Pung, two streams in early Jeju-do Protestant Church were consolidated into one. These streams were one : 'Mission through the Treatments' and the other : 'Mission through Guidelines for Modernization.' There was a good cooperation between the natives and Rev. Lee. Like this, the mission of PCK responded enthusiastically the needs of the natives with joining of the two communities.

Key-words: Jeju-do Protestant Church, the faith community of the native, Sinchuk Jeju-do Uprising, Kim Jae Won, Ihori Community, Cho Bong Ho, Kumsungri Community, oral tradition, Memories of Avison.